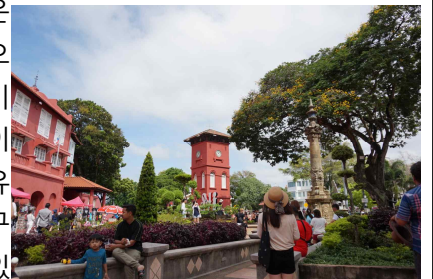


1. 참가 활동 내용(사진 포함 가능)

마지막 기말고사를 마치고 설레는 마음으로 떠난 토요일이었다. 오랜만에 가는 해외여행이었고, 학교에서 가는 프로그램으로 마지막 추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에 부풀어 출발했다. 생각보다 길었던 6시간 반 정도의 비행을 마치고 도착한 첫째 날은 거의 이동만 한 날이었다. 말레이시아에서의 일정이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와 말라카에서 둘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첫 날 도착 후 저녁 식사를 하고 바로 말라카로 이동하였다. 저녁은 현지식이면서 중국식 음식을 먹었는데, 말레이시아에 화교가 약 25%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중국 문화가 많이 흡수되어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말라카는 우리나라로 치면 경주와 같은 도시로,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있다고 한다. 과거 왕국이었던 만큼 말레이시아의 역사가 많이 남아있는 지역이었다. 그렇다보니 수도만큼 도시로서 발달되어있는 곳은 아니었지만, 나름의 역사적 매력을 그대로 품고 있는 도시였다. 호텔 도착 후 짐을 풀고 자유 시간을 가지며 휴식을 취했는데, 마침 우리나라가 월드컵 경기를 치르는 날이라 친구들과 함께 축구를 관람했다. 아직 첫날이라 다들 서먹서먹한 감이 있었는데, 축구를 계기로 많이 가까워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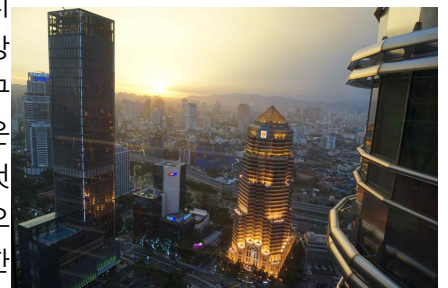
둘째 날은 본격적으로 말라카의 유적지를 둘러보았다. 가장 먼저 방문한 곳은 **칭훈탕 사원**으로, 명나라 장군 정화를 기리기 위해 세운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불교 사원이었다. 평소에도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인 만큼 향을 피우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리고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의 모습이 남아있던 **네덜란드 광장**은 아기자기한 느낌의 광장으로, 말라카 속에서 작은 유럽을 느낄 수 있었다. 날씨도 좋고 건물 색깔들이 모두 예쁜 붉은 색이어서 친구들과 사진을 많이 찍곤 했다. 그리고 언덕에 올라 유럽의 가톨릭 요소가 남아있는 **세인트폴 대성당**에 방문했다. 많이 훼손되긴 했지만 색다른 느낌의 건물이었고 앞에 세워진 사비에르 신부 동상에 대한 전설도 재밌었다. 건물 내부에 촘촘히 쌓여있는 철판 사이로 동전을 던지 않고 떨어뜨리면 행운이 온



다는 말을 듣고 직접 해보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말라카 강 크루즈**를 타면서 말라카를 좀 더 둘러보았다. 주변의 벽화들을 감상하는 재미가 있었고, 밤에 야경을 보는 크루즈 투어도 정말 아름다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 하루 남짓한 시간이었지만 인상적이었던 말라카를 통해 지금까지 가봤던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또 다른 매력을 감상할 수 있었다. 독자적 왕국으로 시작했지만 포르투갈, 네덜란드, 영국 등 여러 국가의 식민지와 화교의 유입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종교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라카를 둘러본 후 저녁쯤 수도인 **쿠알라룸푸르**에 다시 도착했다. 확실히 수도여서 그런지 말라카와는 분위기가 많이 달랐고, 역시나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곳은 **페트로나스 트윈 타워**였다. 흔히 말해 말레이시아의 쌍둥이빌딩인 이곳은 말레이시아 국영 석유회사 본사로, 한 건물은 일본, 다른 한 건물은 한국 건설사들이 시공했다고 한다. 완공되었을 1998년 당시에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다. 트윈 타워 내부로 들어가 중간 지점에서 한번, 86층인 전망대에서 한번 쿠알라룸푸르의 전경을 감상했는데, 중간 지점에서는 해질녘이라 멋진 석양을 볼 수 있었고 전망대에서는 화려한 도시 야경을 감상할 수 있었다. 친구들과 같이 사진도 많이 찍고 서로 찍어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고, 그 때 찍은 사진을 자석으로 구입한 것이 아주 소중한 기념품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저녁으로 한식도 맛있게 먹었다. 현지식도 입에 잘 맞았지만 역시 오랜만에 먹는 한식은 정말 맛있었다. 전날에 비해 일정이 많아 더운 날씨에 돌아다니느라 속스에 도착했을 때 정말 피곤했지만 말라카와 쿠알라룸푸르 두 도시 모두를 알차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뿌듯한 하루였다.



셋째 날은 공식 일정이 많이 있는 날이었다. 먼저 우리 학교의 자매대학인 **쿠알라룸푸르 국립대학(National University of Malaysia)**을 방문했다. 국립대학답게 규모가 매우 컸고 학생들의 복지를 위한 시설들이 잘 구비되어 있었으며, 다양한 학부가 존재하고 있었다. 아주대학교처럼 공과대학의 규모가 큰 점도 매우 흥미로웠다. 우리는



그 중에서도 국제학부에 방문해서 교수님의 **특강**도 듣고 **토론**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강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정치에 관해 알 수 있었던 유익한 시간이었다. 최근에 있었던 말레이시아의 정치 체제 변화와 우리나라 또는 국제사회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서도 생각해볼 수 있어서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다. 그냥 앉아서 강의만 듣는 것이 아니라 퀴즈와 질의응답 등 여러 형식을 통해 개방적인 분위기에서 교류가 이루어진 점 역시 좋았다. 또한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의 국제학부는 학사 과정이 아니라 박사·석사 과정만 운영되고 있어 대부분 3,4학년이었던 우리에게 졸업 후에 공부하러 많이 오라는 말씀도 해주셨다. 현지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매우 친절하게 해주셨고 시간 관계상 30분 정도밖에 진행할 수 없었던 **캠퍼스 투어** 역시 신기한 경험이었다. 이렇게 우리학교를 벗어난 다른 국가의 다른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더 많았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자매대학 방문 후 **주 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에 방문했다. 대사관에서 대사님의 좋은 말씀도 듣고 직원분이 해주시는 말레이시아에 대한 간략하면서도 핵심적인 설명을 재밌게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대사관에서 하는 주요 업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 있었다. 사실 개인적으로 외국을 여행할 때에는 한국 대사관에 방문할 일이 거의 없는데 이렇게 대사관의 역할과 업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회가 일정에 포함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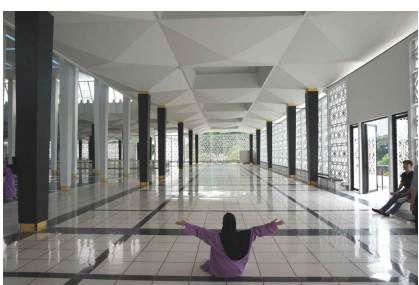


마지막 공식일정은 **코트라 쿠알라룸푸르 지사**에 방문하여 특강을 듣는 것이었다. 국제학부 학생으로서는 누구나 꿈꾸는 코트라에 방문하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었지만, 해외취업에 대해서 막연하게만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에 접근하고 실현하는 방법 등에 대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특강을 통해 좀 더 잘 알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해외취업을 먼저 해보신 선배님들이 현실적인 조언과 경험담 등 쉽게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설명해주신 점도 좋았다. 질의응답 시간에도 유익한 말이 많이 오간 것 같아서 지금처럼 진로에 관한 고민이 많은 시점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공식 일정을 마치고 호텔로 돌아가는 데 비가 많이 오고 퇴근시간이라 차도 많이 막혀서 걱정했지만 곧 비가 그쳐서 다행이었다. 저녁 **자유 시간**에는 친구들과 호텔 근처에서 마사지도 받고 잘란알로 야시장을 돌아보며 쇼핑도 하고 맛있는 길거리 음식들도 먹었다. 날씨는 더웠지만 말레이시아를 제대로 즐기는 기분이 들어서 좋았고 지금 다시 생각해봐도 정말 잊지 못한 추억들을 많이 만든 것 같다.



눈 깜빡할 사이에 한국으로 돌아가는,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날이 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가장 먼저 말레이시아 국왕이 거쳐하고 있다는 **왕궁(이스타나 네가라)**을 방문하였고 **말레이시아 국립 이슬람 사원 마스지드 느가르**로 이동했다. 말레이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는 아니지만 국립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고 다시 한 번 말레이시아의 다양한 인종과 종교에 대해서 생각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이곳에서 여학생들은 직접 이슬람 여성처럼 옷을 입고 히잡을 써보는 체험을 했다. 직접 써보니 정말 더웠다. 바람이 잘 통하지 않아 머리와 등에 땀이 계속 흘렀다. 이렇게 더운 복장을 매일 하고 다니는 이슬람 여성들이 정말 존경스럽다는 생각이 들었다. 잊지 못할 경험이 된 것 같다.



이슬람 사원 근처에는 **메르데카 광장**이 있었다. 이곳은 '독립 광장'이라는 뜻으로, 말레이시아가 독립 후 영국 국기를 철거하고 말레이시아 국기가 게양된 역사적인 장소라고 한다. 실제로 가보니 건물도 고풍스럽고 주변 공원이나 분수 등도 아름다워 사진 찍기에도 좋았고 여유로운 분위기 역시 느낄 수 있었



다. 이렇게 쿠알라룸푸르의 주요 지점을 감상하고 점심 식사를 하러 갔다. 이번 식사 역시 현지식이었지만 그동안 먹었던 중국식 현지식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식탁 한가운데 깊이 파인 화덕 같은 곳에 냄비를 넣고 끓여먹는 해산물이 가득 들어간 음식이 마치 한국의 짬뽕과 비슷한 느낌이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난다. 점심식사를 한 후 **겐팅 하일랜드**로 향했다. 겐팅 하일랜드는 말레이시아에서 유일한 카지노 시설이 있는 곳으로, 카지노뿐만 아니라 다양한 쇼핑, 레저 등을 즐길 수 있는 대형 시설이다. 무엇보다 이곳은 차로도 산 위에까지 이동하고, 그 후에 또다시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갈 정도로 고지대에 위치해 있어 '구름 위에 라스베이거스'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다. 실제로 올라가보니 정말 까마득했고, 머리가 멍멍할 정도로 높이 위치해있었으며 날씨도 조금 쌀쌀했다. 이곳에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구경했던 기억 역시 잊지 못할 것 같다.



마지막 일정은 힌두 사원인 **바투 동굴**을 방문한 것이었다. 바투 동굴은 시바신의 아들이자 전쟁의 신인 무루간을 기리기 위한 사원으로, 압도적으로 큰 불상과 과거, 현재, 미래를 상징하는 세 종류의 계단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람들은 이 사원을 오름으로써 참회와 수련을 한다고 한다. 나 역시 그 규모에 압도되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다. 공사 중인 곳이 많아서 조금 아쉬웠지만 자연 동굴의 아름다움도 느낄 수 있었고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원숭이들 역시 인상 깊었다.

한식으로 말레이시아에서의 마지막 식사를 마치고 공항으로 이동했다. 밤 비행기라 피곤할 만도 했지만 친구들과 공항에서 마지막까지도 같이 다니며 힘든 줄도 몰랐던 여행이었던 것 같다.

2. 참여 소감 및 향후 계획

개인적으로 2015년 하계 베트남 문화체험 이후 두 번째이자 마지막 문화체험이었는데, 왜 졸업 전에 더 가보지 않았을까 하고 후회가 되었을 정도로 매우 유익하고 재밌는 문화체험이었다. 처음에는 더운 날씨도 걱정이 되고 낯선 친구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그런 걱정들이 무색할 정도로 좋은 추억이 되었다. 사실 동남아시아의 한 국가라고만 알고 자세히는 잘 모르던 말레이시아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자세히 알게 되었고 다음에도 또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현지 가이드 분께서도 말레이시아에 대한 설명을 알기 쉽고 재밌게 해주셔서 관광지를 방문할 때에도 감상하는 마음이 남달랐다. 말레이시아의 정치 이슈나 주요 산업, 생활, 인종, 종교 등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재미있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을 다시 한 번 실감했던 여행이었다.

말레이시아는 아직 우리나라의 80년대 정도의 생활 모습을 보이긴 하지만, 수도 쿠알라룸푸르만 하더라도 고층 빌딩이 매우 많고 경제 성장이 꽤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트남에 방문했을 때에도 베트남의 예상보다 훨씬 뛰어난 경제 성장에 놀랐는데, 말레이시아 역시 그랬다. 동남아시아라고 해서 저발전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금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실제로도 말레이시아의 경제는 지속적으로 발전중이다. 나집 총리의 부정부패로 주춤하기도 했지만 그 전에 장기 집권했던 마하티르 총리가 닦아놓은 기반이 있고, 또 지난 5월 있었던 총선으로 마하티르 총리가 재집권하게 되면서 말레이시아 경제와 사회 등에 다시금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 말레이시아는 동남아시아 국가들 중에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와 브루나이를 제외하면 가장 GDP 순위가 높고, 자신들이 가진 천연가스, 팜 오일 등의 자원을 활용한 산업을 육성시키고 있다. 또한 자국 자동차를 생산·소비할 정도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입지도 가지고 있으며 코타키나발루 등 휴양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여행·서비스 부문에서의 수익도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말레이시아의 상승세와 더불어 말레이시아 국민들의 K-POP, K-drama에 대한 높은 관심과 우리나라와 일본을 롤 모델 삼아 경제성장을 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의 정치 체제 변화에 우리나라의 촛불 집회의 영향이 컸다는 점 등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 우리나라와의 관계도 매우 중요하고 간과할 수 없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이러한 밀접한 관계를 알고 자매대학, 대사관, 코트라를 방문했을 때에는 말레이시아와 해외취업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뀌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우리나라 기업이나 인적 자원이 말레이시아와 지금보다 더 많이 교류된다면 양국에 서로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나 역시 말레이시아로 취업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이슬람 국가이지만 이란이나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국가들보다는 종교적 억압이 덜한 모습을 보이는 점도 흥미로웠다. 중국 화교와 인도인 등 다양한 인종 구성이 그 이유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회 구성 자체도 단일민족 국가인 우리나라와 완전히 다른 점이어서 흥미로웠고 반면 오랜 식민지의 아픈 역사를 지닌 점은 공통점이라 감정 이입

이 되기도 했다. 이렇게 말레이시아를 방문함으로써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도 하고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과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 지 생각해본 것도 흥미로운 점 중 하나였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는 것도 여행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이고 여행의 긍정적인 점이라고 생각한다.

졸업을 앞둔 시점에 떠난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은 말레이시아와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에 많은 변화를 일으켰으며 새로운 점 역시 많이 알게 된 좋은 기회였다. 취업에 있어서도 동남아시아 시장에 대한 열린 시각을 가지게 된 것 같고 좀 더 넓은 세상에 대해 알게 되었다. 요즘 우물 안 개구리 같다는 생각을 종종 하곤 했는데 지금 시점에 직접 외국에 나가서 다양한 것을 배우고 느껴본 것이 매우 큰 도움이 된 것 같다.

국제학부 수업을 통해 배운 점도 많고, 이렇게 실제로 문화를 체험해 봄으로써 배운 점도 많은 만큼 이러한 것들을 경험 삼아 취업 준비를 할 때에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다. 앞으로 진로를 설정하고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국제학부에서 배운 점들을 열심히 활용할 계획이다.

이번 문화체험을 통해 좋은 친구들도 많이 알게 되었고 다들 거리낌 없이 함께 잘 다녀서 더 재밌었다. 대부분 국제통상을 복수전공 또는 부전공하는 친구들이라 이야기할 때도 쉽게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방 친해질 수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학기를 마친 상태라 새로 사귀 친구들을 학교에서 다시 만날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은 건 정말 아쉽지만 그만큼 말레이시아에서라도 학교 사람들과 마지막으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와서 뿌듯하다. 처음 지원할 때 이번 문화체험을 개인적으로 성장하는 기회로 삼고 싶고, 같이 가는 동료들과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다고 했는데 두 목표 모두 달성한 것 같아서 정말 만족스러운 문화체험이었다.

3. 프로그램 주관 기관 및 대학에 바라는 점

우선 이번 말레이시아 문화체험을 통해서 다양한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신 주관 기관과 대학 측에 감사하다. 담당 인솔자이신 실장님께서도 학생들 관리를 잘 해주셨고 현지 가이드 분께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면서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해주셨다. 이동 시간이 많았는데 지루하지 않게 계속 말레이시아에 관한 재미있는 이야기도 해주시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주셔서 좋았다.

뿐만 아니라 대사관이나 코트라 등 개인적으로 여행을 가서는 방문하기 힘든 기관에도 방문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했다. 5일 중에 하루에 불과했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울 수 있었다. 앞으로 지속될 문화체험 프로그램에서도 이러한 일정들이 더 알차게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에서의 캠퍼스 투어가 시간 관계상 짧게만 이루어졌고, 현지 학생들과의 교류는 아예 이루어질 수 없었던 점이었다. 말레이시아에 가기 전부터 기대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런지 더 아쉽게 느껴졌다. 다음 문화체험부터는 현지 학생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면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렇게 유익한 문화체험이 학생들 사이에서 홍보가 많이 못 된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다. 좀 더 많은 학생들이 이 프로그램을 알고 참여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정도 적절하고 주요 관광지도 다 살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만족스러웠다. 앞으로도 이러한 문화체험을 통해 더 다양한 학과의 학생들이 더 다양한 나라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좋을 것 같다.

4. 다른 학우 및 후배들에게 남기고 싶은 말

다른 학우들과 후배들이 국제학부에서 제공하는 문화체험과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나도 왜 좀 더 많이 참여해보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을 정도로, 이러한 프로그램을 통해 개인적인 여행과는 또 다른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 문화체험은 비록 긴 기간을 해외로 나가는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짧게나마 다른 나라를 경험하고 옴으로써 교환학생이나 단기파견, 어학연수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개인적으로 이번에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을 방문하고 나서, 한 번의 교환학생 경험 말고 다른 프로그램을 활용해 다른 나라로 더 많이 나가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남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학교생활 4년 중 아쉬움을 덜 남기려면 우리학교 울타리 안에만 있지 말고 말레이시아 국립대학처럼 우리 학교와 자매대학인 곳으로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 최대한 많이 나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어학연수나 대학원으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국제교류 등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면 문화체험을 더더욱 추천해주고 싶다. 직접 해외로 나가봄으로써 많은 것을 느낄 수 있고 한국에만 있을 때보다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상을 복수전공이나 부전공하는 학우라면 수업시간에 동남아시아와 국제교류에 대해서 많이 배웠을 것이고, 그렇게 배운 점을 실제로 느껴볼 수 있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처음은 어려울 수 있지만 몇 번 외국에 나가보면 다른 나라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기 때문에 국내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꿈을 펼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공식 일정 같은 경우도 너무 지루하게만 생각하지 말고 돌이켜보면 배울 점이 많으니 적극 참여하길 권장한다. 학교에서 보장하는 프로그램 인만큼 안전하고 유익하게 다녀올 수 있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기회인 국제학부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 또한 외국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기 위해 외국어 공부도 틈틈이 하면 좋을 것 같다고 말하고 싶다.